

교수가 '유령대학 학위 장사'

가짜 온라인 대학 만들어 수업료 등 명목 16억 챙긴 3명 적발

미국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인 것처럼 속여 가짜 온라인 원격대학을 설립한 뒤 학생들을 모아 수업료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혁상)는 20일 국내 인터넷상에 온라인 대학을 설립한 뒤 정상적인 학위를 수여하는 미국의 온라인 원격대학인 것처럼 속여 거액의 수업료 등을 챙긴 속칭 '퍼시픽 예일대학교'(Pacific Yale University·PYU) 총장 황모(47)씨와 사무처장 조모(51)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총장 이모(59)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PYU가 미국에 존재하는 온라인 대학교로, 원격교육으로 미국유학

이 가능하고 전 세계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정상적인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속여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수강생 159명으로부터 수업료 등 16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령대학'으로 황당한 시기=전 남지역 모 대학 조교수인 황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학을 모델로 가짜 대학인 PYU를 만들고, 형식적인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했다.

수강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이들은 홈페이지 등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교가, 하와이와 괌에 분교가 있다고 속이고 미국인 교수진이나 서울대학교 교수가 강의를 맡고 있다고 거짓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홈페이지에 소개된 미국인 교수진은 실제 교수진

이 아니다. 일부는 대학 교수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지만, 동영상 강의도 없이 한글 강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수강생들이 이를 다운받아 독학으로 공부토록 했다.

◇치밀하고 대담한 수법=이들은 수강생들을 속이기 위해 학위증·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영문 서류를 국내에서 제작했고, 국내 대학교수들을 초청해 몇 차례 세미나도 개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일부 수강생의 이문을 제기하면 "교육방식과 운용체계가 부실하긴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하와이 주 정부와 괌 정부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정식 인가 대학교이고 학위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수강생들을

설득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왜 많았나=피해 수강생들은 우선 국내 대학이 아닌 미국의 온라인 대학으로 소개된 만큼 구체적인 사정에 어두웠다. 또 온라인 대학의 성격상 국내 정규대학보다 쉽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 중에는 학위취득 후 다른 대학원에 진학하려다 '가짜 학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입학이 불허되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PYU 가짜 박사학위 취득자 중 9명이 학술진흥재단에 학위 신고를 했고, 이 중 1명은 가짜 학위임을 알면서 국내 모 사이버대학 강사로 취직했다가 업무부해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보름달이 수십개 떴네

정월 대보름을 하루 앞둔 20일 밤 함평군 월야면 달맞이공원에서 어린이들이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쥐불놀이를 하고 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보성 연쇄살인 70대 어부 사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욱)는 20일 보성에서 관광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부 오모(70)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배에 탄 10대와 20대 남·여 4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체포된 뒤에도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 31일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먼저 남성을 바다로 밀어 살해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살해했다. 또 같은 해 9월 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

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비정의 아버지' 6년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욱)는 20일 아들(15)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

버지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아들이 글씨를 못쓰고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담구채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고 아들을 숨지게 하기 전에도 학대한 점이 인정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7일 여수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나무라며 담구채로 허벅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환자 이송 육군 헬기 추락

장병 7명 전원 사망

20일 새벽 1시 40분께 육군 204항공대 소속 UH-1H 헬기 1대가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인근에서 추락, 조종사 신기용(44) 준위 등 탑승 장병 7명 전원 이 죽었다.



육군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19일 저녁 강원도 홍천 국군철정병원에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뇌출혈을 일으킨 육군 모 군단 소속 윤모 상병을 긴급 수송한 뒤 20일 새벽 0시 55분께 수도병원을 출발, 복귀하던 중 오전 1시40분께 레이더에서 사라지면서 교신이 끊겼다.

이 과정에서 군은 부조종사 황갑주(35) 준위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이날 새벽 3시52분께 용문산 남쪽 3.4km 지점 용촌리 일대에서 추락한 헬기 잔해와 탑승 장병의 시신을 발견했다.

헬기는 산기슭에 박혀 동체가 두 동강났고 날개도 부서졌으며 잔해는 반경 20m 안에 흩어져 있었다고 육군 관계자는 전했다. 사고 원인은 안개 등 기상악화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헬기의 기체결함 여부도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나원침 (7438) 김장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만영

"임금 안준다" 식당에 인분 뿌려

상대말

○...내내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식당에 인분을 뿌린 40대 남성이 업무부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2·북구 용봉동)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전모(48)씨의 J식당에 들어가 아내(40)의 20일치 밀린 임금 8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원형 플라스틱 통에 자신의 인분을 담아 전씨의 얼굴 등에 뿌렸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약속한 날짜까지 임금이 입금되지 않은 이유를 따졌는데, 경찰에서 "전씨가 '가게 형편이 어려워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자 화가 났었다"고 진술. ○...한편, 김씨가 뿌린 인분이 식당 주변으로 튀는 바람에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노홍철씨 피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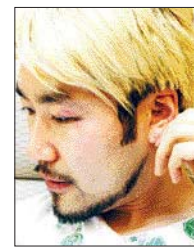
정신 이상 20대에 폭행 당해

유명 방송인 노홍철(29·사진)씨가 정신이상 전력이 있는 20대 청년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노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모 아파트 9층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모(27)씨로부터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맞아 왼쪽 귀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김씨는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은 김씨가 접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압수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노씨가 아버지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서 혼을 내주고자 폭행했다"고 말했으나 노씨와 김씨 아버지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최근



정신 이상으로 회사를 퇴사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망상에 따른 돌출행동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제일맨비뇨기과 의원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요관결석-충진파 쇄석기 남성수술클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문의 (062)233-5119

Large advertisement for 'Seegi' (세기) insurance. The headline reads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Seegi hearing aid, stands tall in the world!). It features a large graphic of a hearing aid and a cityscape background. Text includes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and '수세기소라 - 세기보청기'. Contact information: 1588-8400, 02-722-0100.